

3/11/18

설교 제목: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2:1-21

-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절관주** 엡 5:10
-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절관주** 고전 12:7, 엡 4:7
- (롬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롬 12: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 (롬 12: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 (롬 12: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 (롬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 (롬 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 (롬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 (롬 12: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 (롬 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롬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롬 12: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 (롬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2: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절관주** 잠 25:22, 벵전 2:21

(롬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다른 성경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기독교의 교리와 삶의 적용을 병행하여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1 장부터 11 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12 장부터 15 장 13 절까지가 적용 부분입니다. 본장은 삶에서의 적용 부분에 대해 언급한 첫 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제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들여다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제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 양 비취어질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을 필요가 있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인지라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종교도 교육도 심지어 교회도 모두 그렇습니다.

권력, 물질, 성 등등 깨끗한 영역이 없습니다.

악이 만연해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조차 구별도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남도 다 하는데 안하면 나만 손해이지"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 걸리면 자신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재수가 없음을 탓합니다.

요즈음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꼴들을 보십시오.

권력으로 축재하고, 물질로 이권을 사고, 지위로 성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목사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세상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 다 내려놓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교인들에게 목이 터지라 외치면서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도 천국에 가지 않고 혼자 이 땅에 남아서 영원히 살려는지 물질을 더 못 챙겨 안달들입니다.

의식없는 교인들은 거기에 장단 맞추어 덩달아 날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 없는 까닭입니다.

3.5%의 소금이 녹아 있는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은 3.5%의 소금, 3.5%의 참 그리스도인이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말한 것을 종합하여 정리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앞 절이 무슨 내용인가를 보겠습니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고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11 장에서  
초지일관 말한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절은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인간이 죄성을 지닌지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까?

1.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우리의 몸이 당신께 산 제물로 드려지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었던 우리의 옛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새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 불법이나 음란 약물 술 담배 두도덕한  
죄악 등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자신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히 '너희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 하는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3.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4. 각각 믿음의 분량과 기능 그리고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내에서 각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과 기능과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범사에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는 '건전하게'라는 뜻입니다.

(롬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달린 지체들입니다.

교회 즉 그리스도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며 그 지체들은 각각 독특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롬 12: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롬 12: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거나 어떤 은사가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기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5.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롬 12: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롬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구원받은 우리는 거짓없는 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짓 입술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형제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우리를 아무 조건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6.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롬 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7.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롬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지만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종국에서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견고히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8.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롬 12: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9.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여야 합니다.

(롬 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도 우리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알아 주실 것입니다.

#### 10.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롬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과 함께 웃고 이웃과 함께 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위로해 주고 도와 주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라도 너그럽고 겸손한 마음 가짐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 11.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롬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2: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롬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직접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 7: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 7: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